

《內經》의 五味論과 四象醫學과의 關係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院 原典醫史學 林鎮錫

I. 序 論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현상과 실체는 陰陽五行으로 귀납시킬 수가 있다. 《內經》에서는 萬物을 다섯가지 맛에 의해서 분류하여 정리한 부분이 여러 곳이 있다. 그리고 本草學에서는 대다수의 本草가 氣味論에 의하여 그 맛의 대강이 결정되어 왔다.

本編에서는 五味가 가지고 있는 陰陽五行上의 의미와 그 相剋關係, 體用關係를 통해서, 그 작용상의 특징을 분류귀납하고, 四象醫學의 분류에 의한 藥物을 五味로써 歸納整理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本 論

1) 《內經》의 五味論의 고찰

《素問·金匱眞言論》에서는 ; “東方青色 入通於肝…其味酸. 南方赤色 入通於心…其味苦, 中央黃色 入通於脾…其味甘, 西方白色 入通於肺…其味辛, 北方黑色 入通於腎…其味鹹”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五味를 五行의 분류로 歸納시킨 것이다. 즉, “木 - 酸, 火 - 苦, 土 - 甘, 金 - 辛, 水 - 鹹”이라는 等式이 성립된다.

여기에서 五行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五行이 드러나는 모습을 계절로 비유해서,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 “春三月 此謂發陳…養生之道也, 夏三月 此謂蕃秀…養長之道也, 秋三月 此謂容平…養收之道也, 冬三月 此謂閉藏…養藏之道也.”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木, 火, 金, 水의 특징을 볼 수가 있다. 木氣가 왕성한 봄에는 묵은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때로서 萬物을 發生시킨다. 火氣가 왕성한 여름에는 만물이 무성하게 드러나는 때로서 氣가 極盛하다. 金氣가 왕성한 가을에는 茂盛함을 억제시켜서 平靜하는 때로서 露出되어 있던 氣가 거두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 水氣가 무성한 겨울은 문을 닫고 안으로 감추는 때로서 氣가 안으로 숨어서 貯藏된다.

이러한 특징을 간략히 표현해서, “木 - 生, 火 - 長, 金 - 收, 水 - 藏”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土 - 化”라는 전통적인 분류방식이 포함된다)

2) 五味의 作用上的 특징.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五味를 이러한 분류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게 그 중요한 문제점이다. 일단은 연관지워서 고찰하면, “木 - 酸味 - 生, 火 - 苦味 - 長, 土 - 甘味 - 化, 金 - 辛味 - 收, 水 - 鹹味 - 藏”로 연결된다. 즉, 신 맛은 發生시키고, 쓴 맛은 무한히 分裂시키고, 매운 맛은 거두어 들이고, 짠 맛은 완전히 凝結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신 맛을 먹게되면, 가장 먼저 오싹 움추러드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發生力이라는 것은 일으켜서 키우는 것이다. 즉, 봄에 처음 새싹이 잘 돋도록 도와주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때에는 적당한 溫氣와 養分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움추러 들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發生力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 맛이 發生力이 있다는 말은 별로 근거가 없어 보인다. 차라리 發生力은 단 맛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쓴 맛에 대해서 고찰하면, 대부분의 쓴 맛을 함유한 약물들은 “瀉火”시키거나 “下氣”시키니, 分裂하던 것들을 끌어 모아서 내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長”이라는 뜻은, 식물들이 봄에 싹이 났다가 여름이 되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씨앗에서 시작했던 生命力이 펼쳐져서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며 分裂의 極端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쓴 맛이 이러한 작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매운 맛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매운 맛은 收斂作用을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發散作用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收斂은 가을에 추수를 하는 의미와 같다. 만일 무한하게 分裂만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산산히 흩어져 버려서 生命을 유지 할 수 없다. 즉, “生”과 “長”으로 형성된 만물을 모아서 結實하는 과정이 “收”라고 하겠다. 매운 맛은 오히려 火氣를 조장해서 無限分裂을 유도할 뿐이다. 따라서 “收”라는 개념에 적합한 맛은 오히려 신 맛이 적합하다.

짠 맛은 사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水의 凝固의 성질을 빼앗아서 그 형태를 무너뜨린다. 五行上的 水는 凝固力의 상징이다¹⁾. 짠 맛이 만물의 氣를 더욱 저장시켜서 凝固力을 상승시킨다면, 더욱 단단해지고 여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짠 맛과 凝固力(藏)은 관계가 없다. 한편, 물체를 태우면 일반적으로 쓴 맛이 난다. 그러나 계속해서 태우면, 하얗게 탈색이 될 뿐만이 아니라 형태자체가 아예 분산되어 흩어져 버린다. 따라서 “까맣게 탔다”는 뜻은 “火氣를 더 이상

1. 만물을 단단하게 만드는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시멘트를 물로 반죽하지 않고 굳힐 수가 있는가? 인체에서도 “水”에 해당하는 뼈가 가장 단단하다. 이러한 이유는 水가 상징하는 凝固力 때문이다. 水는 “열매속의 씨”와 같은 것으로서, 生命力을 가장 깊숙히 간직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編者注)

받을 수 없을 만큼 받았다”는 뜻이다. 더 이상의 火氣를 받게되면 존재 자체가 分散 되어버려서, 이미 “없다(無形)”는 뜻이다. “없다(無形)”는 것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른 곳에서 존재하므로, 論할 대상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쓴 맛은 火氣를 가장 많이 간직한 상태에서, 오히려 生命力을 간직하는 “藏”의 작용에 가깝다고 보겠다.

다음으로, 단 맛은 火의 작용을 간직하고 있다고 연관지을 수 있다. 五行說에서는 기후에 따라서 일년의 사계절의 특징을 “生,長,化,收,藏”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서 土는 四季節의 각각의 사이를 지칭하기도 하고, “長夏”라고 하여 여름과 가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어쨌건,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中間段階에 속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前後의 過程의 틈에서 兩者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長夏는 한여름의 極盛함이 가을의 肅降하는 기운으로 넘어가는 時點을 지칭하는데, 이 지점에서 萬物들은 “變化”를 시작한다. 즉,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化”라는 意味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모습을 바꾸게 하는 작용(變)을 형태로 나타내는(化) 것이다. 이미 모습을 바꾸었으면, 이것은 “收斂(金)”과 “貯藏(水)”이라는 과정을 겪은 열매와 씨에 해당한다. 따라서, “化”라는 의미는, 양쪽의 반대편으로 길이 있는 산봉우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을 陰陽의 입장에서 보면, 陽氣의 極盛함의 최고 頂点이며 동시에 陰氣의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土의 作用은 겉으

로 드러날 수가 없다고 보겠다²⁾. 그러나 단 맛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단 맛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緩和”로 의미를 부여하여, “누그러 뜨린다, 멎힌 것을 푼다, 부드럽게 만든다.” 등등의 의미로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解毒한다, 瀉火한다”까지로 그 뜻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단지, 그 主作用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副隨的인 作用이며 신체에서 나타나는 이차적인 반응을 관찰하여 얻은 결론이다. 대부분의 단 맛은 열매와 뿌리에서 結實이 된 것들이 많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養分の 貯藏倉庫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단 맛은 사물이 스스로의 生命力을 발휘하기 전까지의 生長을 擔當하면서도 이후의 계속된 滋養作用을 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發生”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보겠다.

이상에서 論한 것들을 다시 간략하게 고찰하면, 단 맛은 發生力을, 매운 맛은 分裂作用을, 신 맛은 收斂作用을, 쓴 맛은 凝固作用을, 짠 맛은 緩和作用을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3) 相克에 의한 考察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 “나무는 쇠를 만나면 끊어지고,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지며, 흙은 나무를 만나면 막혀서 不通되고, 쇠는 불을 만나면 무너지고, 물은

2. 陰陽의 논리에서 보면, 兩極이 만나는 하나의 점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存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五行의 作用面에서 의미하는 “土”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編者注)

흙은 만나면 단절된다(木得金而伐, 火得水而滅, 土得木而達, 金得火而缺, 水得土而絕).”고 하여, 五行의 相克關係를 제시했다. 五行의 相克關係는 이처럼 한쪽을 다른 한 쪽이 專의으로 억압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五行의 相生과 不可分의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相生과 相克은 同時에 존재하는 것이다. 五行의 相生相克을, 時間의 概念을 도입하고, 陰陽의 측면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陰陽으로 구성 되어있다. 즉, 陰陽이라는 對立의 이며 依存的인 양쪽의 作用이 없이는 “存在”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 木, 火는 계절적으로 봄, 여름에 해당한다. 이 때에는 일년중의 陽에 해당하는데, 주로 發生과 分裂作用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膨脹現象을(이것이 木, 火이다) 억압하고 늘려서 막지 못한다면(이것이 金, 水이며 木, 火에 대해서 相克이다), 無限한 分裂로 인하여 宇宙가 터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金, 水는 가을과 겨울에 해당한다. 이 때는 일년중의 陰에 해당하며, 주로 收斂과 凝固作用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收縮現象을(이것이 金, 水이다) 뽑아내고 늘리지 않으면(이것이 木, 火이며 金, 水에 대한 相克이다), 無限한 收縮으로 인하여 우주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相克이 없이는 존재가 없고, 存在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相克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木, 火, 土, 金, 水의 특징을 내포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內部에 그에 相克하는 金, 水, 木, 火, 土를 간직하고 있는 상태이다(그래야만 존재가 가능하다). 이 간직된 相克의 특질들이 外部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五行의 作用인 것이

다.

여기에서는 體, 用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五行上 그 本體에 대하여 相克的인 五行의 特徵을 발휘하는데, 이것을 作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행의 相克關係로 다시 五味論을 관찰하면, 五味의 生成은 木, 火, 土, 金, 水의 순서인 酸, 苦, 甘, 辛, 鹹이지만, 그 作用機轉은 相克의 關係로 나타난다. 즉, 酸, 苦, 甘, 辛, 鹹의 本體는 金, 水, 木, 火, 土의 순서로 作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酸味는 金氣(“收”)를, 苦味는 水氣(“藏”)를, 甘味는 木氣(“生”)를, 辛味는 火氣(“長”)를, 鹹味는 土氣(“化”)를 發揮한다는 것이다.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 “五味陰陽之用何如?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 六者 或收或散 或緩 或急 或燥 或潤 或軟 或堅 以所利而行之 調其氣 使其平也.”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辛甘은 發散作用을 하여 陽에 속하고, 酸苦는 涌泄作用을 하여 陰에 속한다.”는 곳이 以上의 의미를 要約하였다고 하겠다.

4) 四象醫學의 處方에서 나타난 本草와 五味와의 關係

우선 各體質別로 藥物의 五味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이상의 도표로써 맛에 의해서 四象體質의 분류에 의한 本草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陰人, 陽人의 구별에 있어

3. 여기의 각 약물의 味는 《神農本草經》과 李尚仁의 《本草學》, 《中藥大辭典》을 근거로 하였으며, 곁하고 있는 맛도 아울러 기재하였다.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太陽人
甘	人參 甘草 黃耆 大棗 當歸 白朮 附子 香附子	麥門冬 薏苡仁 山藥 蒲黃 鹿茸 龍骨 葛根 元肉 桑白皮 蓮子肉 乾栗 升麻 天門冬 蘿卜子 款冬花	茯苓 乾地黄 車前子 防風 澤瀉 猪苓 石膏 甘遂 覆盆子 栝藋仁	蘆根 葡萄根 櫻桃
辛	肉桂 乾姜 半夏 巴豆 砂仁 川芎 蘇葉 益智仁 良姜 藿香 大腹皮 香附子 白朮 附子	石菖蒲 白芷 桔梗 蘿卜子 蒿本 杏仁 款冬花 遠志	石膏 牡丹皮 獨活 荊芥 羌活	五加皮
酸		五味子 酸棗仁	山茱萸 覆盆子	木瓜
苦	何首烏 百朮 芍藥	瓜蒂 麻黃 黃芩 大黃 牛黃 蒿本 甘菊 遠志 杏仁 升麻 天門冬 桔梗	黃連 黃栢 苦參 知母 柴胡 梔子 連翹 枸杞子 前胡 木通 玄參 地骨皮 獨活 乾地黄 猪苓 牡丹皮 猪苓 羌活	松節
鹹	百何首烏	螻蛄	(澤瀉 車前子)	

서, 辛甘과 酸苦에 의한 구별은 어느 정도의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藥物은 물론 그 味에 의해서만 藥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形態와 氣와 色을 아울러 병행하여 전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本編에서는 단지 味가 내포하고 있는 意味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少陰人의 藥物은 甘味와 辛味가 거의 대부분이다. 少陰人은 陽氣의 上昇力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대부분으로서 <內經>의 “辛甘發散爲陽”의 說이 거의 부합 되는듯이 보인다. 五行의 구분으로

보아서도, 木氣와 火氣를 간직한 약물을 많이 응용하였다.

太陰人의 藥物은 甘味와 辛味가 많아서 內經의 說과 어느정도 부합이 된다. 그러나 苦味의 비중도 만만하지가 않다. 이것은 肝의 흡수력이 과도해서 나타난 裏熱證을 해소하기 위해서 苦味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五行의 구분으로 보면, 木氣와 火氣를 많이 응용하였으며 아울러 水氣도 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少陽人의 藥物은 苦味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涌泄爲陰”한다는 說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甘味의 比重도 많다. 그러

나 甘味의 藥物도 氣가 溫熱한 것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五行으로 고찰하면, 水氣를 많이 응용하였다.

太陽人의 藥物은 빈도수가 많지 않아서 고찰할 수 없었다.

四象醫學의 學說에서는 표면적으로는 “五行”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다. 그러나 陰陽을 다시 나누어 四象으로 구분한 體質醫學은 五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五行에서 意味하는 生,長,化,收,藏의 원리를 升降理論과 表裏理論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인체의 疾病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단지 陰病은 陽으로 치료하고, 陽病은 陰으로 치료한다는 單純論理는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以上の 맛에 의한 區別은 그 치료의 大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명하기 위해서는, 本草의 形態와 색깔, 氣에 대해서도 陰陽五行을 통한 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結 論

앞서의 研究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五味를 陰陽으로 구분하면 辛甘은 陽으로 酸苦는 陰에 해당한다.

2) 맛으로 구별한 五行의 본체(五味)는, 각각의 相克關係의 五行上의 特徵을 간직하고 作用으로도 나타난다. 즉, 甘味는 木氣를, 辛味는 火氣를, 酸味는 金氣를, 苦味는 水氣를 간직하고 人體에서의 作用도 이와 동일하다.

3) 《內經》에서 제시한 “辛甘發散爲陽”은 太.少陰人의 치료법에 해당되고, “酸苦涌泄爲陰”은 太.少陽人의 치료법에 해당된다.

4) 本草의 연구는 形色氣味論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本編에서는 五味에 관해서만 論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本草를